

妊娠惡阻症의 方劑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 洪 三*

康 舜 洙**

〈目次〉

- I. 緒論
- II. 研究資料 및 方法
- III. 本論
- IV. 總括 및 考察
- V. 結論

I. 緒論

妊娠惡阻는 妊娠中毒症의 前期現像으로 所謂 因胎而致母病의 基本病症이라 할 수 있다. 惡阻의 語源은 「惡食阻食」의 略稱으로 「巢氏病源論」에서 비롯되었으며 「產寶方」에서는 이것을 「子病」이라 하였고 一名 「病兒」라고도 하였다.³⁷⁾

흔히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妊娠 1~2 個月間 繼續되다가 消失되는 것이 普通이나 境遇에 따라서는 妊娠 末期까지 繼續되는 수도 있다. 普通의 輕症의 嘔吐는 妊娠嘔吐라하며 頑固한 嘔吐등으로 高度의 營養障碍를 일으키면 이것을 妊娠惡阻라 한다.

대개의 症狀은 惡心嘔吐, 胃腸障碍, 嗜

酸, 頭眩, 精神不安 等の 症狀이 나타나며 惡阻症의 主症候인 妊娠嘔吐는 보통 胃腸障碍로 因한 嘔吐와는 달리 새벽이나 오후 3시경의 주로 空腹時에 일어나기 쉬운 것이 特徵이다. 嘔吐의 内容物은 飲食物이 섞이지 않은 粘液狀의 液體인 경우가 많으며 또는 膽汁이 섞인 黃色液體를 吐出하기도 한다.

西洋醫學的 側面에서 嘔吐中樞인 胃의 迷走神經을 刺戟하여 發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妊娠嘔吐가 심하면 全身의 營養障碍를 招來하니 이것을 妊娠惡阻라 칭한다.

그러므로 妊娠嘔吐가 生理的이라면 妊娠惡阻는 病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金匱要略」에서 張¹⁾은 「婦人의 脈이 得平脈하되 陰脈만이 小弱하고 渴不能食

*圓光大學校 韓醫大 大學院

**圓光大 韓醫大 方劑學 教授

하고 無寒熱하면 妊娠惡阻의 漸이다」라 하였으며, 「婦人良方大全」에서 陳³⁾은 「惡阻는 顔色이 如故하고 脈息和順하다」고 하였고, 「醫學綱目」에서 樓¹⁶⁾는 「惡阻謂嘔吐惡心 頭眩 惡食擇食是也」라 하였다.

이에 本人은 妊娠惡阻에 關한 文獻을 中心으로 그 原因과 症狀 및 特히 方劑를 分類하고 整理하여 考察함으로써 臨床研究에 도움이 되고자 本 研究를 試圖하는 바이다.

II. 研究資料 및 調查方法

一. 研究資料

研究資料는 金匱要略 및 婦人良方大全을 비롯하여 歷代 重要醫書로부터 現代의 中國 및 韓國書籍과 漢方婦人科學에 이르기까지 古典 및 現代文獻 等 總 48 種으로 하였다.

- | | |
|------------------|-----------------------|
| 1) 金匱要略 : 張仲景 | 14) 千金要翼方 : 孫思邈 |
| 2) 諸病源候論 : 巢元方 | 15) 傳青主女科 : 傳山(青主) |
| 3) 婦人良方大全 : 陳子明 | 16) 醫學綱目 : 樓全善 |
| 4) 濟陰綱目 : 武之望 | 17) 醫學入門 : 李梴 |
| 5) 千金方 : 孫思邈 | 18) 醫宗金鑑 : 吳謙 外 |
| 6) 聖濟總錄 : 吳錫黃 外 | 19) 張氏景岳全書 : 張介賓 |
| 7) 太平聖惠方 : 陳昭遇 外 | 20) 六科準繩 : 王肯堂 |
| 8) 醫學門徑 : 徐學山 | 21) 東醫寶鑑 : 許浚 |
| 9) 醫部全書 : 陳夢雷 | 22) 辨症奇聞 : 陳士鐸 |
| 10) 丹溪心法附餘 : 朱震亨 | 23) 素虛後世處方學 : 趙世衡 |
| 11) 萬病回春 : 延賢 | 24) 萬氏婦人科 : 西昌斐 |
| 12) 濟衆新編 : 康明吉 | 25) 續名醫類案 : 魏之琇 |
| 13) 外臺秘要 : 王壽 | 26) 婦人病自療法 : 梁世鐸 |
| | 27) 增補百病辨證錄 : 陳士鐸 |
| | 28) 足本大字驗方新編 : 李遜齊 |
| | 29) 增補珍本醫書集成 : 聘褻吉 |
| | 30) 實用中醫學 : 秦伯未 |
| | 31) 婦產科學 : 上海中醫學院 |
| | 32) 方藥指鍼 : 孟華燮 |
| | 33) 李常和治療指鍼 : 李常和 |
| | 34) 漢方臨床四十年 : 朴炳昆 |
| | 35) 漢方臨床學 : 蔡仁植 |
| | 36) 晴崗醫鑑 : 金永勳 |
| | 37) 漢方婦人科學 : 宋炳基 |
| | 38) 中醫師臨床手冊 : 馬康慈 |
| | 39) 漢藥臨床應用 : 李尚仁 外 |
| | 40) 臨床本草學 : 辛民教 |
| | 41) 方劑學 : 康舜洙 外 |
| | 42) 實用中醫方劑學 : 游士勳 外 |
| | 43) 方劑學 : 上海中醫學院 |
| | 44) 漢方基準處方集 : 大韓漢醫師協會 |
| | 45) 漢方處方解說 : 矢數道明 |
| | 46) 醫方集解 : 汪昂 |
| | 47) 天真處方解說 : 神戶中醫學 |

研究會

48) 方藥合編 : 黃道淵

二. 調査方法

研究資料를 中心으로 婦人門과 妊娠門, 그리고 婦人科 部分에서 妊娠嘔吐 및 妊娠惡阻에 關係된 記錄을 拔萃하고, 이것을 分析하여 原因과 症狀 및 方劑를 分類하고 整理하였다.

III. 本論

一. 惡阻症의 定義

妊娠惡阻는 胎前病의 一種으로 妊娠嘔吐의 重症을 말하는 것으로서 病的인 症狀이다. 惡阻에 對하여 「增補珍本醫書集成」에서 聘^{29), 27)} 등은 「婦人壞妊之後 惡心嘔吐 思酸解渴 見食憎惡 困倦欲臥 皆曰妊娠惡阻也」라 했으며, 「萬病回春」에서 공¹¹⁾은 「惡阻者 惡心 阻其飲食也」라 하였으며, 「丹溪心法附餘」에서 朱¹⁰⁾는 「惡阻者 謂婦人有孕 惡心 阻其飲食者是也」라 하였다. 또 「婦人自病療法」에서 梁²⁶⁾은 「妊娠惡阻 其名子病 亦曰吞酸」라 하였으며, 「濟陰綱目」에서 武^{4), 16), 32)} 등은 「惡阻謂 嘔吐 惡心 頭眩 惡食 擇食也」라 하였고, 「萬氏婦人科」에서 西²⁴⁾는 「惡阻者 謂有胎氣 惡心 阻其飲食也」라 하였으며, 「張氏景岳全書」에서 張¹⁹⁾은 「妊娠之婦 每多 惡心嘔吐 腹滿不食 巢氏病源謂之惡阻」라 하였고, 「醫宗金鑑」에서 吳¹⁸⁾는 惡心嘔吐 名惡阻 擇食任意過期安」라 하였으며, 「李常和治療指針」에서 李^{33), 30)} 등은

「妊娠之際 經脈不行 濁氣上于清道 腕致中腕停痰 眩暈嘔吐 胸膈滿悶 名曰惡阻」라 하였다.

二. 病因說

病因에 대하여 살펴보면 「金匱要略」에서 張^{1), 32)} 등은 「胃有寒飲則逆 胃有熱則亦逆以嘔吐不止也」라 하였고, 「千金方」에서 孫^{4), 5), 20)} 등은 「凡婦人虛羸 血氣不足 腎氣又弱 或當風飲冷太過 心下有痰水者 欲有胎 而喜病阻 所謂欲有胎者 其人月水尚來 顏色肌膚如常 但苦沈重 悶」이라 하였으며, 「諸病源候論」에서 巢^{2), 32)} 등은 「謂之惡阻 由胃氣怯弱 中腕停痰而成也」라 하였으며, 「婦人良方大全」에서 陳^{3), 4), 20), 32)} 등은 「妊娠稟受怯弱」을 病因으로 보았으며, 「聖濟總錄」에서 吳⁶⁾는 「論曰 婦人所食穀味化爲血氣 下爲月水 凡妊娠之初月 月水乍聚 一月爲媒 二月爲胚 三月爲胎 胎成即男女分方食於母 而口以焉 在媒胚之時 血氣未用 五味不化 中氣壅實 所以脾胃不思穀味 聞見於物 故惡心有所阻也」라 하였다.

그리고 「太平聖惠方」에서 陳⁷⁾은 「夫水飲停積 結聚爲痰」하여 惡阻가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續名醫類案」에서 魏²⁵⁾는 「飲食停滯 兼 肝木傷脾土」라 했으며, 「醫學門徑」에서 徐⁸⁾는 「精血散分 肝木不暇疎轉脾土 土氣不能自運 所以惡心而阻寒也」라 하여 肝(木)과 脾(土)의 相剋關係로 說明하였고, 「醫部全書」⁹⁾에서 「兒蓋其人 宿有痰飲 血壅而不行 故飲隨氣上停滯肝經 肝之味酸則必喜啖酸物 金剋木以辛勝之」라 하여 역시 木剋土의 關係를 五味와

聯關시켜 說明하였으며, 「辨症奇聞」에서 陳^{22), 27)} 등은 「肝血大燥」라 하였고, 「增補百病辨證錄」에서 陳^{27), 22)} 등은 「肝血之太燥乎 夫腎一受精則腎水生胎不能分潤于他臟 肝爲腎之子 日食腎母之氣 一旦無津液之養則 肝氣燥而益急火動而 氣乃逆也於是惡心嘔吐之症生」이라 하여, 腎(水)과 肝(木)의 相生關係로 病因을 說明하였다. 또 「丹溪心法附餘」에서 朱¹⁰⁾는 「愛喫一物乃一臟之虛 血不能營肝 故愛喫酸物」이라 하여 肝이 한가지 飲食만을 좋아해서 他臟이 不養하여 血이 肝을 滋養할 수 없어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增補珍本醫書集成」에서 聘²⁹⁾은 「肝血太燥乎 婦人受妊本於腎氣之旺也 腎旺是以攝精 然腎一受精而成娠則腎水生胎不暇化潤於五臟而肝爲腎之子 日食母氣以舒 一日無津液之養則 肝氣迫索而腎水不能應則 肝益急 肝急則火動而逆也 肝氣概逆是以嘔吐惡心之症生焉」이라 하였으며, 「傳青主女科」에서 傳¹⁵⁾은 「肝氣上逆」이라 하여 朱¹⁰⁾와 聘²⁹⁾과 傳¹⁵⁾ 등이 惡阻의 病因을 모두 肝氣와 關聯이 있다고 보았다.

「醫學入門」에서 李^{17), 21), 32)} 등은 惡阻의 病因을 「由子宮經絡 絡於胃口 故逢食氣引動 精氣衝上 必食吐 盡而後精氣乃安 亦有誤交合而子宮穢盛者 過百日愈」라 하였고, 「素虛後世處方學」에서 趙²³⁾는 「子宮經絡이 胃口에 連結되어서 胎氣가 上으로 거슬러 胃에 닿아서 發生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經絡의 原因을 說明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 吳¹⁸⁾는 「胃弱 胎氣阻逆 或痰飲阻逆」이라 하였고, 「景岳全書」에서 張¹⁹⁾은 「胃虛氣滯 然亦有素本不虛已忽受胎妊則衝任上壅 氣

不下行 故爲嘔逆等證」이라 하였으며, 「婦人病自療法」에서 梁²⁶⁾은 「胃氣怯弱 中脘停痰」이라 하여, 이들은 모두 胃弱 或은 胃虛로 그 原因을 보았다.

그리고 「萬氏婦人科」에서 西²⁴⁾는 「恐傷胎氣」라 하였으며, 「中醫師臨床手冊」에서 馬³⁸⁾는 「胎氣上逆 胃失和降 或 肝胃不和 脾胃虛弱」이라 하였고, 「晴崗醫鑑」에서 金³⁷⁾은 「血虛氣弱 瘦婦胎熱 肥婦濕痰」이라 했으며, 「實用中醫學」에서 秦^{30), 33)} 등은 「經脈不行 濁氣上于清道 以致中脘停痰」이라 하였고, 「婦產科學」³¹⁾에서는 「婦人壞孕後 經血聚以養胎 衝脈之氣上逆 胃氣不降 升降失司」라 하면서, 「肝經鬱熱, 痰濕阻滯, 脾胃虛弱」의 세 類型으로 나누어 說明하였으며, 「方藥指針」에서 孟³²⁾은 「妊娠稟受怯弱 便有阻病」이라 하였다. 「漢方臨床四十年」에서 朴³⁴⁾은 「妊娠中에 形成된 毒素가 母胎內에 蓄積되어 일어나는 一種의 妊娠中毒 症狀으로서 貧血症, 胃潰瘍, 先天性胃奇形, 子宮後屈, 子宮口糜爛, 子宮肥大로 因한 腹膜刺戟, 히스테리, 神經症 등이 素因이 되는 것이다」라 했으며, 「漢方臨床學」에서 蔡³⁵⁾는 「婦人이 受胎 後에 胎中에서 排出하는 廢物 或은 卵巢黃體가 消化液 中에 滲入되어 一種의 反射作用을 일으키게 하고, 또는 受精한 卵子가 子宮低部나 子宮壁에 着床하여 胎盤組織을 形成하면 다른 周圍도 假膜이 形成한다.

50-60日 後에는 胎兒發育으로 胃部의 感覺神經에 影響이 波及되어 嘔吐를 일으킨다」라 하였다.

一般的으로 妊娠惡阻症은 不明의 毒素인 妊娠毒으로 因한 血液의 物理 化學

的變化가 嘔吐中樞인 胃의 迷走神經을 刺戟하여 發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胃카다르潰瘍, 下垂 및 慢性便秘 等 胃腸疾患, 子宮後屈, 陰部미爛 等 性器疾患, 神經過敏, 히스테리等 神經疾患, 卵巢, 甲狀腺, 副腎 等の 內分泌機能障礙, 肝臟의 舍水炭素 代謝障礙等の 疾病이 있으면 妊娠惡阻症을 일으키기 쉽고 그 症勢가 增惡한다. 특히 精神神經說이 重視되고 있는데 自律神經의 緊張은 胃의 迷走神經을 刺戟하기 때문이다.³⁷⁾

이처럼 여러 學者마다 各各의 病因을 主張하고 있으나 자세히 考察하여 보면 이들은 共通的인 素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三. 症狀

症狀에 對하여 살펴보면 「婦人良方大全」에서 陳^{3), 4), 20), 21), 28), 32)} 등은 「其狀顏色如故 脈息和順 但覺肢體沈重 頭目眩擇食 惡聞食氣 好食鹹酸 甚者或寒熱 心中悶 嘔吐痰水 恍惚不能支持」라 하였으며, 「千金方」에서 孫⁵⁾은 「欲有胎者 其人脈尚來 顏色肌膚如常 但苦沈重 悶 不欲飲食 又不知其患所在 脈理順時平和」라 했고, 「濟陰綱目」에서 武^{4), 32)} 등은 「嘔吐 惡心 頭眩 惡食 擇食是也」라 하였고, 「聖濟總錄」에서 吳⁶⁾는 「其病 心中 悶 頭重 目眩 四肢怠惰 惡聞食氣是矣」라 했으며, 「太平聖惠方」에서 陳⁷⁾은 「妨害飲食 乃至嘔逆 妊娠之病 若嘔逆甚者傷胎也」라 하여 妊娠嘔吐의 重한 狀態를 말하였으며, 「醫學門徑」에서 徐⁸⁾는 「嘔吐惡心 胸膈滿塞 時或發熱 氣不足息 愛酸餌菓 不甘穀食

怠墮嗜臥 四肢無力」이라 하였고, 「丹溪心法附餘」에서 朱¹⁰⁾는 「戴云 惡阻者 謂婦人有孕 惡心阻其飲食者是也」라 하였으며, 「濟衆新編」에서 康¹²⁾은 「嘔吐惡心 或吐清水 頭眩 惡食擇食 多從痰治 或 誤交合子宮穢盛者 過百日即愈 孕婦所思之物 任意食之必愈 肥人多痰 瘦人多熱 稟受虛弱者 顏色如故 脈和順 但體重 頭眩 惡食 好食鹹酸 甚則寒熱 心 嘔吐痰水 恍惚」이라 하였다.

또 「醫學綱目」에서 樓^{16), 21)} 등은 「全不入食 嘔吐惡心 頭眩 惡食擇食」이라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 李^{17), 21)} 등은 「或大吐 或時吐清水 惡聞食臭」라 하였고, 「醫宗金鑑」에서 吳¹⁸⁾는 「惡心嘔吐 擇食任意過其安」이라 하여 時間이 지나면 스스로 便安해진다고 하였고, 「景岳全書」에서 張¹⁹⁾은 「惡食嘔吐 脹滿不食」이라 하였으며, 「辨症奇聞」에서 陳^{22), 27), 29)} 등은 「婦人 妊娠之後 惡心嘔吐 思酸解渴 見食即憎 困倦欲臥」라 했으며, 「萬氏婦人科」에서 西²⁴⁾는 「脈息平和 但覺肢體沈重 頭目昏眩 擇食 惡聞食氣 好酸鹹 甚者 或作寒熱 心中 悶 嘔吐痰水 胸膈煩滿 恍惚不能支持」라 하였고, 「婦人病自療法」에서 梁²⁶⁾은 「時欲嘔吐 肢體異常沈重 喜食鹽酸食物」이라 하였다.

「晴崗醫鑑」에서 金³⁶⁾은 「惡心阻食 重則極度衰弱 貧血 眩暈昏倒」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實用中醫學」에서 秦^{30), 33)} 등은 「眩暈 嘔吐 胸膈滿悶」이라 하였으며, 「婦產科學」³¹⁾에서는 「妊娠後 惡心嘔吐而阻礙飲食 飲食即吐 或不食亦吐 吐出流泡沫粘液 或膽汁乃血絲 氣血虛弱而消瘦 脈搏加快 口乾而渴 口臭 皮膚乾燥 眼球下陷

低熱」이라 說明하였고, 「李常和治療指針」에서 李³³⁾는 「惡心嘔吐 思食酸物生果 見食憎惡 微有寒熱 困倦欲臥」라 했으며, 「漢方臨床四十年」에서 朴³⁴⁾은 「輕症은 2~3個月間 惡心嘔吐 食慾減少 食物嫌惡 疲勞衰弱 皮膚乾燥 口渴 體重減少, 重症은 中毒症 口渴甚 舌苔強 呼氣時發惡臭 口內粘膜乾燥 脈數細少 或高熱 胸部痛 皮膚乾燥 輕度黃疸」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漢方臨床學」에서 蔡³⁵⁾는 「惡心嘔吐 胸滿頭眩 惡食嘔逆 四肢沈重 心悸氣短」이라 하였으며, 「中醫師臨床手冊」에서 馬³⁶⁾는 「輕度惡心嘔吐 胃口不好 屬正常反應 妊娠惡阻則嘔吐嚴重 妨碍飲食 甚至發營養不良 惡心嘔吐劇烈時 可造成脫水 酸中毒 如見脈搏加快 體溫升高 出現黃疸」이라 하였다.

四. 治方

治方に 있어서 陳^{22), 27), 29)} 등은 「嘔吐縱不至太甚 而其傷氣則一也 氣則受傷 則肝血愈耗 世人用四物湯 治胎前諸症者 正以氣能生肝之血也 然補肝以生血 未爲不佳 但生血而不知生氣 則脾胃衰微 不勝頻嘔 山恐氣虛則血不易生也 故於平肝補血之中 加以健脾開胃之品 以生陽氣 則氣能生血 尤益胎氣耳 或疑氣逆而用補氣之藥 不益助其逆乎 不知妊娠惡阻 其逆不甚 且逆是因虛而逆 非因邪而逆也 因邪而逆者 助其氣則逆增 因虛而逆者 補其氣即逆轉 況補氣於補血之中 則陰足以制陽 又何慮其增逆乎 宜用順肝益氣湯」이라 하여 順肝益氣湯^{15), 22), 27), 29), 32), 33)}을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陳^{22), 27)} 등은 「此方肝腎脾胃肺五經同調之法 其意專主于肝腎 肝平則氣不逆 腎旺則血易生 凡胎不動而少帶惡阻者俱 以此方投之無不安靜 如故有益于孕婦不淺寔勝于四物之湯也 蓋四物湯專治肝 此方不治肝 所以奏功尤神耳」이라 하였으며, 聘²⁹⁾은 「肝則逆除 補腎則肝燥息 補氣則血易生 凡胎病而少帶惡阻者 俱以此方投之無不安 最有益於胎婦 其功更勝於四物焉」이라 하였으니, 이 治方の 藥物構成은 「白芍藥 三錢, 當歸 二錢, 白朮 三錢, 人蔘 一錢, 茯苓 二錢, 陳皮 三分, 熟地黃 五錢, 蘇子 一錢, 麥門冬 三錢, 砂仁 一粒, 神曲 一錢」^{15), 22), 27), 29), 32), 33)}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處方은 肝, 腎, 脾, 胃, 肺의 五經을 同時에 調和시키는 藥으로서, ²²⁾白芍藥은 柔肝止痛, 平抑肝陽, 養血斂陰, 補血, 補陰의 效能이 있고, 當歸는 補血和血, 行血, 潤腸通便, 調經止痛의 效能이 있고, 白朮은 補脾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의 效能이 있으며, 人蔘은 大補元氣, 安神益智, 健脾益氣, 生津의 效能이 있고, 茯苓은 利水參濕, 健脾和中, 寧心安神의 效能이 있으며, 陳皮는 利氣健脾, 燥濕化痰의 效能이 있고, 熟地黃은 滋陰, 補血의 效能이 있으며, 蘇子는 下氣停喘, 止喘消痰, 寬胸解鬱의 效能이 있고, 麥門冬은 滋陰清熱, 潤肺生津, 強心利尿, 化痰止咳의 效能이 있으며, 砂仁는 調中行氣, 溫脾止瀉, 安胎, 利氣寬胸의 效能이 있고, 神曲은 消食行氣, 健胃止瀉, 解表의 效能이 있다.^{39), 40)}

그리고 「肥人多痰 瘦人多熱」이라 하여, 「半夏 陳皮 茯苓 各二錢 甘草 一錢」²¹⁾으로 構成된 二陳湯^{9), 10), 12), 16), 19), 19), 21), 24), 30), 32), 34)}加減을 使用한다 하였으니, 이는 「婦

人月事不行 全不入食 日就瘦弱 全似虛勞 然而 雖不入果子雜物常喜食之 却之是有 孕諺 所謂孕婦做得百病者此也 但以二陳湯 加縮砂 桔梗 入薑 棗 烏梅煎服²¹⁾」으로 理氣化痰 升降清濁 以安胃氣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漢方處方解說」에서 矢⁴⁵⁾는 「本方은 金匱要略의 小半夏加茯苓湯에 陳皮와 甘草를 加한 것이다. 半夏는 君藥으로서 濕을 乾燥시키고 痰을 利하며 茯苓은 佐藥으로서 水分을 돌리어 痰을 消散한다. 陳皮는 臣藥으로서 氣를 順調롭게 하여 痰을 내린다. 甘草는 使藥으로서 脾胃를 補하는 作用이 있다. 方意 弁義에는 「方中 陳皮를 君으로 삼는다. 痰은 모두 濕物이며 中焦에 모인다. 脾胃에 濕이 막혀질 때에는 中焦의 氣가 돌지 못하고 痰이 된다. 그러므로 陳皮를 가지고 이것을 열어서 잘 돌게하여 痰을 去한다. 半夏는 헛별이 物件을 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 茯苓은 차여있는 물을 도랑을 파서 빼내어 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 陳皮로서 脾胃의 濕을 去하고 半夏로서 乾燥시키며 茯苓으로서 痰을 去할 때는 脾胃가 너무 乾燥하므로 甘草를 써서 津液을 保持시키는 것이다」라 하였다. 「方劑學」에서 康⁴¹⁾은 「方中の 半夏는 辛溫性燥하여 燥濕化痰하고 和中止嘔하며 消食散結하는 功效가 있고, 氣가 不暢하면 痰이 凝滯하고 痰이 凝滯하면 氣가 다시 沮滯하므로 陳皮로서 理氣化痰하고 氣가 順한 即 痰이 降하고 氣가 化한 即 痰이 또한 化하여지며 痰은 濕으로 인하여 生하므로 濕이 去한 即 消痰하므로 茯苓은 健脾利濕하고, 甘草의 甘溫으로 和中補土하여 健脾하므로 化濕消痰하여 治療하

게 되며 半夏와 陳皮는 陳久하여야 過燥의 弊가 없으므로 二陳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라 하였다. 「醫方集解」에서 汪⁴⁶⁾은 「薑能制半夏之毒 陳皮半夏貴其陳久 即無燥散之患 故名二陳 此足太陰陽明藥 半夏辛溫體滑性燥 行水利痰爲君 痰因氣滯 氣順即痰降 故以橘紅利氣 痰由濕生 濕去即痰消 故以茯苓滲濕爲臣 中不和即痰涎聚 又以甘草和中補土爲佐也」라 하였다. 「天眞處方解說」⁴⁷⁾에서 「本方은 燥濕化痰의 基本處方이다. 主藥은 半夏다. 鎮咳去痰作用을 가지며 이를 利氣化痰의 陳皮가 補助하여 去痰을 세게한다. 陳皮, 半夏는 함께 制吐作用을 가지며 胃腸의 運動을 促進한다. 茯苓은 組織이나 消化管内의 水分을 血中에 끌어들여 水分量을 늘이고 尿細管의 再吸收를 抑制하여 體內的 剩餘水分을 利尿에 의하여 내보내는데 陳皮, 半夏와 함께 胃內的 溜飲을 排除한다. 甘草도 去痰作用을 가지며 消化吸收를 補助, 諸藥을 調和시킨다. 生薑은 健胃, 制吐作用이 있어 運動을 促進, 消化吸收를 補助하며 半夏의 毒性和 刺戟性을 弱화시킨다. 다만 製半夏를 쓸 때는 特히 生薑을 配合하지 않는다. 二陳湯은 小半夏加茯苓湯에 陳皮, 甘草를 加한 것에 相當하며 어느 것이나 半夏가 主藥이다. 二陳湯은 半夏 陳皮가 主이다. 小半夏加茯苓湯은 半夏, 生薑을 主로 하는데 胃의 痰飲에 의한 嘔吐가 主目的이 된다」라 하였다.

또 惡阻症에 「宜用 半夏茯苓湯」^{3), 4), 5), 9), 13), 14), 19), 20), 21), 24), 25), 31), 32), 34)}이라 하였으니, 이는 「治惡阻病 嘔吐心煩 頭目眩暈 惡聞食氣 好食酸鹹 多臥少起 百節煩疼이瘦

痰盛²¹⁾하며, 藥物構成은 「半夏 一錢半 赤茯苓 熟地黃 各一錢 橘紅 旋覆花 人蔘 白芍藥 川芎 桔梗 甘草 七分」²¹⁾으로 되어 있으며, 半夏는 降逆止嘔, 燥濕祛痰, 散結消腫의 效能이 있으며, 赤茯苓은 清熱利濕, 行水의 效能이 있고, 旋覆花는 止嘔逆, 軟堅痰의 效能이 있으며, 川芎은 活血行氣, 祛風止痛의 效能이 있고, 桔梗은 宣肺祛痰 排膿理氣의 效能이 있으며, 甘草는 補脾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의 效能이 있으니, 此方은 二陳湯에 熟地黃, 白芍藥, 川芎 等 四物之劑를 加하고 補氣시키는 人蔘과 理氣시키는 桔梗과 止嘔藥인 旋覆花를 加하여 構成된 處方으로서 化痰順氣 降逆止嘔의 效能을 가지고 있다.

「婦人良方大全」³⁾에는 保生湯^{3), 4), 12), 18), 21), 23), 24), 32), 33), 34)}을 使用한다 하였으니, 이는 「治婦人月經不行 身無病似病 脈滑大而六脈俱勻 乃孕婦之脈也 精神如故 惡聞食氣 或但嗜一物 或大吐 或時吐清水 此名惡阻 宜服」²¹⁾하며, 「白朮 香附子 烏藥 橘紅 各二錢 人蔘 甘草 各一錢 薑三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白朮의 效能은 補脾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하며, 香附子는 理氣解鬱, 調經止痛하며, 烏藥은 順氣止痛, 散寒溫腎하는 效能이 있다.

脾胃虛, 中脘停痰으로 因한 惡阻症에는 六君子湯^{18), 25), 28), 30), 33)}加減을 使用한다고 하였으니, 構成藥物은 「半夏 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蔘 各一錢 炙甘草 五分 薑三片 棗二枚」²¹⁾로 되어 있으며, 本方은 二陳湯에 人蔘, 白朮, 大棗를 加한 것에 相當하며, ⁴⁷⁾或은 四君子湯에 半夏와 陳皮를 加한 것이다. 또한 香砂六君子湯³¹⁾

을 使用하기도 하는데, 이는 六君子湯에 理氣止痛의 木香과 砂仁을 配合하여 效果를 높이는 處方이다. 「天真處方解說」⁴⁷⁾에서는 「木香은 迷走神經을 刺戟하여 腸의 收縮力과 運動을 增強, 整腸하고 消化吸收를 促進하여 개스停滯에 의한 腹痛을 멎게 한다.

또 抗菌作用도 가진다. 砂仁은 制吐, 健胃作用이 있어 運動을 促進하여 膨滿感이나 腹痛을 멎게 한다」라 하였다.

그리고 白朮散^{4), 7), 20), 21), 32), 34)}은 「治惡阻 吐清水十餘日 粥藥不入」²¹⁾하며, 藥物構成은 「白朮 五錢 人蔘 二錢半 丁香 一錢二分 甘草五分 入薑 五片」²¹⁾으로 되어 있으며, 丁香은 溫中降逆 溫腎助陽의 效能이 있다. 蔘橘散^{4), 12), 21), 32)}은 一名 人蔘橘皮湯이라고도 하는데, 「治惡阻病 嘔吐痰水 全不入食」²¹⁾하며, 藥物構成은 「橘皮 赤茯苓 各一錢半 麥門冬 白朮 厚朴 人蔘 甘草 各一錢 入薑 七片」²¹⁾으로 되어 있으며, 麥門冬은 滋陰清熱 潤肺生津 化痰止咳의 效能이 있다.

歸元散^{4), 8), 12), 16), 20), 21), 24), 32)}은 一名 復元湯이라고도 하며, 「治惡阻 全不入食」²¹⁾하며, 藥物構成은 「白朮 白茯苓 陳皮 各一錢半 半夏 一錢 人蔘 川芎 當歸 白芍藥 丁香 甘草 各五分 桔梗 枳角 各二分半 入薑五 棗二」²¹⁾로 되어 있으며, 枳角은 行氣寬中の 效能이 있다. 이는 모두 益氣健脾 和胃降逆의 效能이 있는 方劑들이다.

그 外에 芎連半夏湯^{2), 21), 32)} 茯苓丸^{4), 5), 6), 13), 20)} 橘皮湯^{4), 6), 13), 14)} 等을 使用한다. 以上の 內容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一〉 惡阻症에 關한 證治表³⁷⁾

辨 證	主 要 症 狀	治 法	治 方
陰陽不調	陰脈小弱 渴不能食 無寒熱	調 陰 陽	桂枝湯
胃虛氣逆	胎氣上逆 胃氣沖動 惡心嘔吐	補 脾 氣	保生湯 加或人蔘 或枳角 無痰飲 不能食
胃虛有痰	痰飲停滯 嘔吐痰水 心煩頭眩 胸悶脇痛	補脾化痰	加味六君子湯 人蔘橘皮湯 加 枳角 或蘇葉 或柴胡
氣血虛弱	頭痛 全不入食 惡心嘔吐 脈弱	補 氣 血	八物湯 加枳角 桔梗 四君子湯加陳皮 麥門 厚朴 竹茹
脾胃虛弱	不能納穀 胎不安 上逆嘔吐 食少 大便自利 痰涎作脹	補脾調氣	錢氏異功散 加半夏 茯苓 白朮 茯苓丸 半夏茯苓湯加 枳殼 香附
經血阻滯	濁氣上逆 心悶 嘔吐 惡食 口乾 頭眩 心神困倦	補脾行血	脈滑者；加減錢氏順肝湯 脈虛者；加減歸芍六君子湯
痰食停滯	宿食停滯 惡食嘔吐 吞氣 腐 胸悶 舌白 脈滑緩	導痰化濁	加味香砂六君子湯
陰血相搏	惡食嘔吐 頭目眩暈 喜酸鹹 多臥 百節煩疼 痰盛	化痰利水	半夏茯苓湯
肝燥氣逆	惡心嘔吐 思酸口渴 見食憎惡 困倦欲臥 或腹痛	補氣生血	順肝益氣湯 六君子湯 加 蒼朮 厚朴 或吳茱萸 黃連
陰血虛弱	嘔吐清水 腹痛不食 左脈弱	理血歸源	小地黃丸 歸原散
虛陽上越	頭眩心悸 面赤 口乾惡食 嘔吐 不寐 脈虛細數	補腎降火	滋陰降逆湯
風寒外感	惡風寒 無汗 頭痛 發熱 惡心 嘔吐 咳嗽	解表調氣	蔘蘇飲 重寒者；人蔘丁香散
胃中寒飲	胃中有寒 胸腹冷痛 吐逆不食	溫胃化痰	人蔘半夏丸
胃中熱飲	心中煩悶 嘔吐惡食 喜飲涼	清熱化痰	加味溫膽湯 或加人蔘
胃火上衝	口糜目赤 鼻 心煩欲飲 嘔吐 舌赤 脈弦數	清胃瀉火	加減三黃石膏湯
痰飲眩盛	痰涎 惡食嘔吐 身倦 多臥少起 心下 胸悶	祛痰化濕	二陳湯 瘦人；加黃芩 黃連 肥人；加竹茹 生薑 胃氣；加砂仁 香附子 悶；加枳角

〈表二〉 處方에 따른 藥物構成

處方	藥物構成
順肝益氣湯	白芍藥 當歸 白朮 人蔘 茯苓 陳皮 熟地黃 蘇子 麥門冬 砂仁 神曲
二陳湯	半夏 陳皮 赤茯苓 甘草
半夏茯苓湯	半夏 赤茯苓 熟地黃 橘紅 旋覆花 人蔘 白芍藥 川芎 桔梗 甘草
保生湯	白朮 香附子 烏藥 橘紅 人蔘 甘草
六君子湯	半夏 白朮 陳皮 白茯苓 人蔘 炙甘草
香砂六君子湯	半夏 白朮 陳皮 白茯苓 人蔘 炙甘草 木香 砂仁
白朮散	白朮 人蔘 丁香 甘草
人蔘橘皮湯	橘皮 赤茯苓 麥門冬 白朮 厚朴 人蔘 甘草
歸元散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人蔘 川芎 當歸 白芍藥 丁香 甘草 桔梗 枳角
芩連半夏湯	黃芩 白朮 半夏 赤茯苓 黃連 陳皮 當歸 梔子 枳角 香附子 人蔘 蒼朮 縮砂 甘草
茯苓丸	赤茯苓 人蔘 桂心 乾薑 半夏 橘皮 白朮 葛根 甘草 枳角
旋覆半夏湯	旋覆花 川芎 細辛 人蔘 甘草 當歸 半夏 赤茯苓 乾生薑 陳皮
旋覆花湯	旋覆花 厚朴 白朮 枳角 黃芩 茯苓 半夏 芍藥 生薑
人蔘丁香散	人蔘 丁香 藿香
安胎飲	甘草 茯苓 當歸 熟地黃 川芎 白朮 黃芪 白芍藥 半夏 阿膠 地榆
人蔘半夏丸	乾薑 人蔘 半夏
橘皮湯	橘皮 竹茹 人蔘 白朮 厚朴
陳皮半夏湯	陳皮 茯苓 半夏 子芩 枳角 紫蘇葉 甘草
縮砂二陳湯	半夏 陳皮 砂仁 白朮 甘草
青竹茹湯	竹茹 橘皮 白茯苓 半夏 生薑
麥門冬湯	麥門冬 人蔘 白茯苓 陳皮 甘草
人蔘飲	人蔘 白茯苓 厚朴 白朮 橘皮 葛根

〈表三〉 表二의 處方中 3回以上 出現한 藥物

藥物名	頻度數	效能
人蔘	14	大補元氣 補脾益氣 生津 寧神益智
白朮	12	補脾益氣 燥濕利水 固表止汗 安胎
陳皮	12	理氣健脾 燥濕化痰
甘草	12	補脾益氣 清熱解毒 調和諸藥
半夏	11	降逆止嘔 燥濕祛痰 消司散結
赤茯苓	6	分利濕熱 行水 清熱利濕
白茯苓	5	利水滲濕 健脾補中 寧心安神
白芍藥	5	柔肝止痛 養血斂陰 平抑肝陽
當歸	5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腸通便
川芎	4	活血行氣 去風止痛
丁香	4	溫中降逆 溫腎助陽
枳角	4	行氣寬中

乾薑	4	溫中廻陽 溫肺化痰 溫經止血
熟地黄	3	補血 滋陰
砂仁	3	調中行氣 溫脾止瀉 安胎
旋覆花	3	消痰平喘 降氣止嘔
厚朴	3	化濕導滯 行氣溫中 降逆

「漢方婦人科學」에서 宋³⁷⁾은 妊娠中の 禁忌藥으로 「斑猫·水蛭·蟲·烏頭·附子·天雄牛黃·麝香·水銀·巴豆·甘遂·大戟·完花·蜈蚣·牛膝·黎蘆·薏苡仁·雄黃·雌黃·菝葜·芒草·牡丹皮·桂皮·代緒石·三稜·菝葜·槐角·牽牛·皂角·桃仁·茅根·乾漆·瞿麥·半夏·南星·通草·乾薑·大黃·犀角·大蒜」 등이 있다고 하였고, 「方藥合編」에서 黃⁴⁸⁾은 그 外에 「紅花·厚朴·蘇木·常山·硫黃·馬肉·羊肝」 등이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半夏는 藥性이 辛熱有毒하므로 그 刺激性이 能히 胎動의 憂慮가 있으므로 「婦人良方大全」³⁾ 등 文獻에 依하면 妊娠中 禁忌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方劑中에는 半夏를 使用하여 惡阻症을 治療한 것을 볼 수 있으며, 「實用中醫學」³⁰⁾에서는 「其半夏雖爲妊中禁藥 然痰氣阻塞中脘 陰陽拂逆 非此不治 以薑湯泡七次 炒透用之即無碍也」라 하였고, 「李常和治療指針」³³⁾에서는 「其中半夏雖爲妊中禁藥 然痰氣阻塞中脘 陰陽拂逆 非此不除 以薑湯泡用之無妨 又與藜朮同用 尤爲穩當」이라 하였으니, 規定대로 修治하여 使用하면 有毒한 半夏일지라도 胎兒를 損傷하지않고 治療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總括 및 考察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妊娠惡阻에 關한 治療는 諸家의 說이 紛紛하여 臨床上 治療方針을 設定하기에 오히려 混亂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綜合的으로 檢討하면 다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1) 虛證 2) 氣證 3) 寒證 4) 熱證으로 分流할 수 있다. 그러므로 惡阻症의 治療를 위한 方劑構成은 基本的으로 除濕化痰, 調胃止嘔하는 藥物을 主劑로 하고, 清熱除煩하는 藥物을 副劑로 配用함이 原則이다.³⁷⁾

여러 文獻을 考察하여 보면 妊娠惡阻症의 病因은 첫째 脾胃가 虛弱하여 中脘에 痰飲이 停滯하여 發生하는 경우, 둘째 妊娠中 稟受가 虛弱하고 氣血이 耗損되어 發生하는 경우, 셋째 子宮經絡이 胃口에 絡하는데, 胎氣가 上逆하여 經脈이 不行하고 胃氣가 失降하여 中脘에 痰濕이 阻塞하여 發生하는 경우, 넷째 妊娠後 腎氣가 虛하여져서 肝氣가 上逆하고, 또 肝木氣가 上逆하여 脾土氣를 剋하게 되어 脾가 不能運化하여 發生하는 경우, 다섯째 妊娠後 子宮內에서 形成되는 異物質이나 毒素가 母胎內에 蓄積되어 發生하는 경우, 여섯째 其他 胃腸疾患, 性器疾患, 神經疾患, 內分泌障礙 等에 依해 發生한다.

그러나 臨床에 있어서는 위에 나타난

여섯 가지의 原因만으로 惡阻症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經産婦에 있어서 妊娠의 경우 甚한 嘔吐症이 있었다면 每 妊娠 때마다 恒常 同一한 症狀이 있어야 하나, 實際로는 出生한 영아에 따라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妊娠惡阻症은 孕婦에게도 一部 原因이 있을 수 있으나, 胎兒의 體質이나 或은 父系나 母系로부터 받은 遺傳的인 要因에 의하여 發生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妊娠惡阻症의 症狀은 一般症狀으로 顔色如故, 肢體沈重, 嗜臥小起, 惡心, 嘔吐, 惡食擇食, 不能食, 惡聞食氣, 好食酸鹹, 頭目眩, 頭重, 心煩, 吐痰涎, 胸膈滿悶, 面萎黃, 精神困倦, 皮膚乾燥, 口渴 등이 나타나며, 重症으로는 激烈한 嘔吐, 食慾全無, 體重減少, 舌苔厚膩, 或 輕都黃疸, 體溫上昇, 脈細小頻數, 尿量減少, 尿中蛋白, 脫水, 全身營養障礙, 中毒證 등이 나타나며, 甚하면 多發性神經炎, 耳鳴, 視力障礙 나타나고, 腦症狀를 招來하면 死亡可能한 경우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症狀들은 妊娠 3~4個月以後에는 心身安定 或 食餌療法으로도 自然治癒가 되기도 한다.

妊娠惡阻症의 治法은 平肝補血, 調脾開胃, 調氣, 除濕化痰, 調胃止嘔하는데, 使用된 主要藥物로는 「表二」에 나타난 芩芩, 白朮, 陳皮, 甘草, 半夏, 赤茯苓, 白茯苓, 白芍藥, 當歸, 川芎, 丁香, 枳角, 乾薑, 熟地黃, 砂仁, 旋覆花, 厚朴, 桔梗, 香附子, 木香, 黃芩 등이며, 그 외에 麥門冬, 神曲, 烏藥, 梔子, 蒼朮, 桂心, 葛根, 細辛, 藿香, 黃芪, 阿膠, 地榆, 竹茹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多用된

藥物을 살펴보면 人蔘이 14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이 白朮, 陳皮, 甘草가 각각 12회로 많이 사용되었고, 半夏 11회, 赤茯苓 6회, 白茯苓, 白芍藥, 當歸가 각각 5회, 川芎, 丁香, 枳角, 乾薑이 각각 4회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人蔘을 많이 사용하면 胎熱을 誘發할 수 있다하니 他藥과 調和를 이루어 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도록 慎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惡阻症의 治療에는 人蔘, 白朮, 陳皮, 甘草 등의 補脾調氣하는 藥物과, 半夏, 赤茯苓 등의 除濕化痰하는 藥物이 主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滋陰補血하는 四物之劑나 枳角, 砂仁, 厚朴 등의 理氣之劑와 丁香, 竹茹 등의 止嘔藥物子¹⁾惡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治方으로는 半夏와 陳皮가 主藥으로 構成된 二陳湯 加減, 半夏茯苓湯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病因을 全적으로 中脘에 痰飲이 停滯되어 惡阻症이 發生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脾胃가 虛弱하여 惡阻症이 發生할 때는 人蔘橘皮湯, 白朮散, 六君子湯, 香砂六君子湯, 歸原散, 保生湯 등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惡阻症으로 胸背가 滿痛할 때는 芩連半夏湯을, 肝氣가 上逆하여 惡阻症이 發生할 때는 順肝益氣湯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半夏의 藥性이 辛溫有毒하므로 胎動을 일으킬 念慮가 있으므로 「婦人良方大全」等 여러 文獻에서 半夏를 妊娠中の 禁忌藥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많은 處方에서 半夏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生半夏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半夏를 올바르게 修治하면 毒性이 除去되고 優秀한 止嘔作用이 發揮되므로

孕婦나 胎兒를 損傷하지 않고 惡阻症을 治療할 수 있기 때문이다.

惡阻症은 많은 妊娠婦에게 나타나는 症狀이며, 臨床에서도 많이 접하나 잘 治療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基本으로 하여 研究가 繼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以上の 文獻을 調査하여 考察한 結果 妊娠惡阻症의 方劑構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一. 惡阻症의 治療를 위한 方劑構成은 基本的으로 補脾益氣, 除濕化痰, 調胃止嘔 하는 藥物을 君藥으로 하였다.
- 二. 補脾益氣하는 藥物로는 人蔘 14回,

白朮 12回, 甘草 12回로 가장 많이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三. 除濕化痰, 調胃止嘔하는 藥物로는 陳皮 12回, 半夏 11回로 半夏와 陳皮를 主藥으로 하는 二陳湯이 主要方劑로 應用됨을 볼 수 있다.
- 四. 主要處方으로는 二陳湯 以外에 半夏茯苓湯, 保生湯, 歸元散, 人蔘橘皮湯, 六君, 子湯, 香砂六君子湯, 白朮散, 茯苓丸, 順肝益氣湯 등이 使用되었다.

以上으로 妊娠惡阻症의 方劑에 對하여 살펴 보았으며 앞으로 臨床應用에서 더 좋은 治療效果를 얻기 위하여 많은 研究가 있어야겠다고 思料된다.

參考文獻

- 1) 張仲景: 金匱要略, 台北, 醫學研究社, pp.392~406, 1987
- 2)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 昭人出版社, 卷41, p.5,
- 3) 陳子明: 婦人良方大全, 서울, 宇宙醫藥出版社, 卷12, p.13, 1975
- 4)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柳林出版社, pp.245~255, 1975
- 5) 孫思邈: 千金方, 서울, 大成文化社, 卷四, p.25, 1984
- 6) 吳錫黃 外: 聖濟總錄, 上海, 上海文瑞書局, pp.396~403, 1977
- 7) 陳昭遇 外: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卷4, pp.2362~2363, 1979
- 8) 徐學山: 醫學門徑,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pp.442~444, 1977
- 9) 陳夢雷: 醫部全書, 서울, 金泳出版社, 第12冊, p.9328, 1975
- 10)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724, 1982
- 11) 延賢: 萬病回春,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p.100, 1985
- 12) 康明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p.245~246, 1975
- 13) 王壽: 外臺秘要, 서울, 泳東文化社, 下卷, pp.877~878, 1975
- 14) 孫思邈: 千金要翼方, 서울, 杏林出版社, pp.98~100, 1976
- 15) 傅山(青主): 傳青主女科, 台北, 力行書局有限公司, pp.145~146
- 16) 樓全善: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卷35, pp.12~16, 1973
- 17) 李 澁: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外集 卷三, p.51, 1981
- 18) 吳謙 外: 醫宗金鑑, 서울, 大成文化社, pp.466~467, 1983
- 19)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서울, 杏林書苑, pp.511~512, 1975
- 20)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翰成社, pp.340~346, 1982
- 21)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607~608, 1981
- 22) 陳士鐸: 辨症奇聞, 서울, 大元出版社, pp.287~288, 1989

- 23) 趙世衡：素虛後世處方學，서울，癸丑文化社，pp.409~410，1984
- 24) 西昌裘：萬氏婦人科，서울，東南出版社，1985
- 25) 魏之琇：續名醫類案，台北，宏業書局有限公司，下卷，p.608，1979
- 26) 梁世鐸：婦人病自療法，台北，新文豐出版公司，p.80，1977
- 27) 陳士鐸：增補百病辨證錄，서울，書苑堂，pp.486~487，1981
- 28) 李遜齊：足本大字驗方新編，서울，上海新書局，p.318，1986
- 29) 聘衰吉：增補珍本醫書集成，台北，世界書局，第13冊，pp.37~38，1961
- 30) 秦伯未：實用中醫學，台北，新文豐出版公司，pp.13~14，1977
- 31) 上海中醫學院：婦產科學，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pp.93~197，1976
- 32) 孟華燮：方藥指鍼，서울，杏林出版社，pp.609~611，1976
- 33) 李常和：李常和治療指鍼，서울，醫藥社，p.478，1986
- 34) 朴炳基：漢方臨床四十年，서울，大光文化社，pp.541~544，1985
- 35) 蔡仁植：漢方臨床學，서울，大成文化社，pp.577~578，1987
- 36) 金永勳：晴崗醫鑑，서울，成輔社，pp.412~413，1988
- 37) 宋炳基：漢方婦人科學，서울，杏林出版，pp.297~303，1984
- 38) 馬康慈：中醫師臨床手冊，台北，衆文圖書公印行，pp.408~410
- 39) 李尚仁 外：漢藥臨床應用，서울，成輔社，1982
- 40) 辛民教：臨床本草學，서울，南山堂，1986
- 41) 康舜洙 外：方劑學，서울，癸丑文化社，p.36,211,213，1973
- 42) 游士勳 外：實用中醫方劑學，台北，樂群出版公司，p.228,370,371，1983
- 43) 上海中醫學院：方劑學，上海，商務印書館，p.203,204,225,226，1975
- 44) 大韓漢醫師協會：漢方基準處方集，서울，大韓漢醫師協會，1981
- 45) 矢數道明：漢方處方解說，大邱，東洋綜合通信大學 教育部，1973
- 46) 汪 昂：醫方集解，台北，文光島嶼有限公司，p.314，1986
- 47) 神戶中醫學研究會：天真處方解說，서울，成輔社，p.40,41,158，1987
- 48) 黃道淵：方藥合編，서울，南山堂，p.278，1986